

四象醫學의 總括的 考察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4년 사상의학실습조

논문지도교수: 宋一炳 · 高炳熙

I. 緒 論

四象醫學은 東武 李濟馬 先生이 1894年 그 의 저서 東醫壽世保元과 格致彙를 통하여 周易과 儒學의 思想을 根本으로 한 性命知行의 四象哲學을 根幹으로해서 完成하고 이의 실천사상으로 제시한 것인데 既存醫學이 黃帝內經과 周易을 중심으로한 黃老學派에 의한 것이었다면 四象醫學은 이러한 黃老學派와 改新儒學이 接木된 人間中心哲學에서 나오는 內面的 心身現象을 體質의 特性으로 하는 四象體質論이다.

李濟馬는 인간의 體質의인 類型을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으로 나누면서 각 體質의 生理와 病理, 治療 그리고 養生을 연구함으로써 醫史學의인 커다란 轉換點을 마련함과 동시에 臨床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體質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人間の 어느 일부분만의 피상적인 관찰에 그치지 않고 人間の 精神과 肉體, 言行과 性格, 體形 등에 이르기까지 多角的이면서도 항상 살아있는 모습의 人間の 體質을 究明한다는 견지에서 統體的이면서도 유기적인 관찰태도를 가지고 이루어 놓은 새로운 人間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四象醫學은 體質의 分類에만 그치지 않고 각자 體質의인 차이가 생기게 된 自然的인 原因을 究明하였음은 물론 이와같은 先天的으로 體質의 特性을 갖고 태어난 人間들

의 健康과 疾病 심지어는 修養의 태도까지를 설파하여 人間으로 하여금 修養으로서 無病長壽하며 人間다운 生을 이루어 天命을 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哲學이자 醫學이라는 뜻에서 人間の 本質을 다룬 새로운 人間學인 것이다. 이러한 四象醫學의 出現은 東西를 막론하고 종전의 의학이 모든 인간을 劃一的으로 취급함으로써 생긴 誤治나 藥의 副作用을 일소하고 體質의 攝生과 治療로 疾病의 豫防과 完全한 治療의 길을 開拓했다는데 큰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모든 사람을 一律的으로 劃一的인 基準 밑에서 보지 않고 어떠한 有似性에 따라 몇개의 類型으로 나누어 보려는 즉 體質의인 차이에 着眼한 것은 이미 의학의 시초부터 있어 왔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인 漢나라 시대에 이루어 놓은 東洋醫學 最古의 原典인 「內經」에는 陰陽論에 의한 陰陽五態人論과 五行說에 의한 五形의 二十五態人論이 記載되어 있다.

西洋에서는 西洋醫學의 鼻祖라 일컫는 그리스의 「Hippocrates」(B.C 475 ~ 380?년)가 體質醫學을 주창한 이후 약 500년 후에 태어난 「Galeus」에 의하여 이 四體質에 따른 四型의 體質로 分類하여 性格-體格 등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理論들이 모두 觀念的인 分類에 그쳤거나 또는 性格관단에 이용된 이외에는 臨床醫學으로서의 계속적인 연구와 實證

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體質分類의 가능성을提示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體質論에 비하여 李濟馬의 四象體質論의 特性은 첫째, 心身이 體質마다 각각 固有하게 달리 表現되고, 둘째, 先天的으로 固定된 體質은 절대 變하지 않는다는 體質不變論을 주장했고, 셋째, 醫學論의 不可被性에 의해 生理, 病理를 중심으로 한 體質論的 醫學을 完成했다(完全 體質論)는 점이다. 이에 學問的 背景, 증치의학과와의 차이점, 體質病證과 체질병증의 運用, 體質屬性和 체질음식, 體質針 및 처방운용의 정신, 四象醫學의 우수성 등을 통하여 四象醫學의 總括的인 내용을 고찰하고 그 特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學問的 背景

先秦醫學時代의 醫學思考는 自然中心哲學的인 思考로 宇宙現象 내지 人間現象을 관찰하려고 한데 반해 李濟馬의 宇宙觀은 直觀的 思考에 입각한 直觀哲學으로 立置概念의 對待關係를 取象하여 人間中心哲學的 思考로 人間이 自律的 存在임을 인식하였다. 더 나아가 인간을 보다 深層的으로 연구하여 次等を 들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四體質로 구분 정립하였다. 이러한 李濟馬의 四象哲學은 既存醫學의 黃老學派의 主氣論的 思考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既存儒學을 탈피하여 改新儒學에 周易의 四元構造的 宇宙精神을 接木하여 독창적인 人間中心哲學을 확립한 것이다.

四象醫學은 性理學의 理氣性情論에서 나온 性情을 根幹으로 性情이 先天的 體質形成의 生理現象과 後天的 病理要因에 까지 관여하고 있

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朱子學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즉 朱子學에서는 性情理氣에 있어서 性은 理요, 情은 氣라 하여 體用관계에 의한 道德을 목적으로 하는 先知後行의 主理論을 주장한 반면 이제마는 喜怒哀樂을 七情중의 일부 개념으로 보지 않고 要略된 基本人性으로 보아 喜怒哀樂之氣의 順動과 逆動에 따라 性과 情으로 나누어지면서 體用관계는 아니라고 했고, 또 已發 未發에 따라 性과 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與人相接之性과 自己獨得之性의 各各有節, 有不節, 有中, 有不中에 따라 性과 情이 分岐된다고 보았다.

이와같이 四象醫學은 現象學과 內面的 氣의 兩面性을 추구하는 즉 氣를 추구하는 의학으로서 既存 증치의학과 脈絡을 같이 하는데 既存 증치의학의 陰陽五行의 相生 相克의 원리를 이용한 方法論 이라면 사상의학은 陰陽偏差를 다소 배제하고 현상학적으로 보려고 한, 四元構造現象에 의한 心身(人間), 事物(環景)로 把握하려고 한 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朱子學이 實踐倫理로서 哲學으로서의 학문만 주장한 반면 四象學은 實學思考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인 실천유학으로서의 哲學과 醫學을 함께 말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廣濟說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廣濟說은 일종의 養生論으로 인체의 건강관리 내지는 예방 의학, 사회의학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性理學과의 또 다른 相異點은 性理學에서는 道德이 최고 목표가 되므로 人間은 선천적으로 정해진 길을 가야 한다고 하여 大學에서 氣質之稟이 우월한 사람에 의해 便之, 治, 教之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마는 人間을 體, 주의환경을 用으로 보아 知行을 쌓아서 道德에 이르고, 道德이 이루어지면 仁聖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하여 도덕은 중간자로서 仁聖의

경지에 이르는 수단으로 여겼으며 인간을 자율적 存在로 인식하여 개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외에 사상의학은 韓方病理論에서도 既存證治醫學과 病理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既存證治醫學은 病邪위주나 元氣위주냐에 따라 邪氣實, 正氣虛의 양면적 概念으로 병리학이 발달해 왔으나 사상의학은 人體를 중심으로 하는 입장은 같으나 正氣가 虛해서 病이 된다는 시각이 아닌 性情의 不均衡에서 오는 疾病觀을 定立하였다.

이와같이 李濟馬는 人間을 自律的 存在로 인식하고 人間中心으로 보아 人間을 深層의으로 연구하여 4체질로 구분 定立하고 四體質論을 完成하고 이에 체질병증론을 完成하여 새로운 치료의학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2. 證治醫學과의 差異點

儒學的 토양 위에서 周易의 主氣論의 宇宙觀인 天人性命의 四元構造的 基本骨格을 도입하고, 性情論的 立場에서 보다 實質的이며 人本主義的 觀點으로 人間과 疾病과의 關係를 해석한 東武 李濟馬 先生의 독창적 의학이론인 四象醫學은 그 創案 동기가 既存醫學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되어 批判과 革新의 새로운 의학 경지를 터득하여 오늘의 四象醫學을 成立시킨 만큼 黃帝內經을 기본 原典으로 하며 궁극적으로 道敎的 人間象을 추구하는 黃老學派의 主氣論의 立場을 취하는 證治醫學과 많은 相異點을 內包하고 있다.

1) 認識論的 差異

① 證治醫學：宇宙的 自然現象의 해석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陰陽五行說을 基本醫學理論으로 하고, 人間을 小宇宙라 하여 天人相應說을 주장하고 있는데 人間の 天稟을 一律的

으로 看做하며 主體로서의 인간보다는 自然現象과 環境에 적응하여 나가는 存在로 인식하는 環境中心的 認識論을 取하고 있다.

② 四象醫學：人間은 제 스스로 自律的인 調節能力이 있는 存在라는 人間中心的 認識論을 취하고 있다.

2) 臟腑論

① 證治醫學：臟腑라 함은 內部臟器의 總稱인데 臟은 사람의 生命이 존속하는 한 間斷 없이 작용하고 있으며 腑는 必要에 따라 기능이 작용하는 것이다. 內部臟器의 基本이 되는 것은 肝心脾肺腎 五臟이며 이에 從屬되는 것이 五腑 즉, 膽, 小腸, 胃, 大腸, 膀胱이며 이들은 陰陽의 表裡關係로 成立되었고 五行의 特性에 따른 生理作用이 있으며 相生相克의 循環關係로 相互의 生理·病理機轉에 영향하고 있다. 이와같은 法則을 설정하고 陰陽五行의 思考로 표현했으며, 臟腑機能에도 이런 형식적이고 觀念的인 사고로 규정했다. 이로써 經絡이 생겨났고, 그 經絡에 配當되는 腑의상 六臟六腑로 분류한 것이다.

② 사상의학：既存醫學의 五行思想을 철저히 버리고, 上焦, 中上焦, 中下焦, 下焦의 四焦概念을 基準으로 설정하여, 人體의 認知能力의 넓고 좁음(耳目鼻口), 上下關係에 있어서의 陰陽(肺脾肝腎), 表裡關係에 있어서의 陰陽(皮筋肉骨)을 바탕으로 4가지 類型으로 區分한 것으로 陰陽의 升降을 통해 조절하는데 心은 “五臟之心 中央之太根也”라 하여 肺脾肝腎의 四維를 主宰하는 위치를 점유하면서 中心의 主宰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形象과 心性이 一致된 概念으로 해석되고 있다.

3) 心 論

① 證治醫學：五行이 지니고 있는 歸屬物類 概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人體의 循環

生理에서 五種機能중 “火”의 기능을 담당하며 나머지 肝脾肺腎 四臟과 同等한 위치에서 一機能을 수행하는 機能的 臟器이다.

② 사상의학: 經學的 思考에 根擧를 두고 心이 一身을 主宰하는 원동력으로 보고 四象을 단위로 하는 五體構造의인 方法을 통하여 이를 관찰한 것으로 肺脾肝腎 四臟과의 관계에서는 中心的 主宰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四象之心은 心의 세계를 보다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그의 特徵의인 四象의 宇宙觀을 導入하여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治療學

① 證治醫學: 疾病의 상태를 크게 2가지 綱목 즉 傷寒論의 立場에서의 邪氣實의 概念과 증치의학적 立場에서의 正氣虛의 概念으로 나누고, 正氣虛의 경우에는 補法으로 치료하고, 邪氣實에 속한 경우에는 瀉法으로 施治하는 補瀉醫學.

② 사상의학: 正氣虛, 邪氣實의 기존증치의학의 治療概念을 넘어서, 性情의 불균형만 조절해주면 虛實은 저절로 조절되므로 虛證藥도 實證藥도 없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運用에 있어서는 汗, 吐, 下 三法인 약을 써야 할 데에 體質屬性에 맞는 약을 이용함으로써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 했고, 궁극에 가서는 汗, 吐, 下 三法의 藥을 이용하지 않으려 했다고 한 점은 결국 體質論의 屬性和 藥物과의 相關關係를 통한 性情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 점이다.

5) 治療대상

① 증치의학: 天稟를 일률적으로 간주하여 病勢의 轉變에만 着目(病症을 대상으로 분류)

② 사상의학: 사람의 天稟을 4개의 類型으로 分類하여 「病勢執症에서 人物辨證으로」의 醫學的 眼界를 전환시킴(人物을 대상으로

분류).

6) 病因

既存證治醫學이 너무 外力의 原因(風寒 暑濕水穀)에만 편중하여 藥物療法에만 注力한 것을 경계하고 사람의 內在的 精神作用(愛惡 慾 喜怒哀樂의 七情)의 중요성을 高調시킴.

3. 體質病症과 體質病證의 運用

東武 李濟馬는 儒學을 四象說로 재구성하여 독창적인 四象醫學說을 發明했는데 그는 人體의 先天的으로 臟腑의 大小偏在를 지니고 있으며, 臟腑의 大小로 인해서 큰 臟器는 그 機能이 더욱 實하기 쉽고, 작은 臟器는 그 機能이 더욱 虛하기 쉽기 때문에 病이 된다고 보았고, 또한 各 體質의 사람들은 哀怒喜樂之氣의 升降에 의해 특수한 질병을 가지게 되고 그 治法 또한 相異하다는 것을 提示하였다.

이와같이 先天的인 臟局偏在와 性情의 升降에 의해 발생한 病證을 論함에 있어서 心은 中央之太極으로 둔채 臟器의 虛實을 탈피하고 臟腑와 表裡寒熱을 결합하여 四象人의 表裡寒熱病證의 概念을 導入함으로써 陰陽升降의 緩速을 待對論理로 설명하였다.

또한 證治醫學의 五志에 대한 五行相克의 循環論理를 탈피하여 哀怒喜樂이 表氣와 裡氣에 영향을 미쳐서 表病과 裡病을 발생시키고 四象人의 恒心이 더욱 심해지면 重證, 大病과 같은 心身病證이 된다고 하였다.

四象醫學의 病證論은 證治醫學에서 論하는 隨證治之의 범위를 벗어나 先天的 臟腑구조를 根幹으로 한 體質의 偏在現象을 시정보완하기 위하여 각자가 타고난 體質과 陰陽升降의 順逆 緩速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

1) 四象人의 病證 및 治療 목표

(1) 少陰人 腎受熱 表熱病證

① 重要病證~鬱狂證과 亡陽證으로 大別되며 各各 初證, 中證, 末證으로 나누어짐.

- 鬱狂證
 - 初證~太陽病 表證 因在而其人如狂者
 - 中證~陽明病 胃家實 不更衣者
 - 末證~陽明病 潮熱狂言 微喘直視者
- 亡陽證
 - 初證~太陽病 發熱 惡寒 汗自出者
 - 中證~陽明病 不惡寒 反惡熱 汗自出者
 - 末證~陽明病 發熱 汗多者

② 치료목표~表陽을 升陽시켜 氣血均衡을 도모함, 桂枝湯, 八物湯으로 升陽益氣시킨다.

(2) 少陰人 胃受寒 裡寒病證

① 重要病證~太陰證과 少陰證으로 구분된다.

- 太陰證: 口中有和 無口渴 而有腹痛自利者
- 少陰證: 口中不和 有口渴 而有腹痛自利者

(3) 少陽人 脾受寒 表寒病

① 重要病證~少陽傷風證과 亡陰證으로 大別된다.

② 치료목표~(表陰降氣) 清裡熱而降表陰

(4) 少陽人 胃受熱 裡熱病

① 重要病證~胸膈熱證(裡熱便閉證과 消渴證)과 陰虛惡熱證으로 大別

② 치료목표~清陽上升

(5) 太陰人 胃脘受寒 表裡病

① 重要病證~太陽寒厥證(背顛表病과 長感病)과 肺燥寒證으로 大別

② 치료목표~肺胃脘之氣의 呼散之氣의 升陽作用을 도와준다.(肺陽升氣)

(6) 太陰人 肝受熱 裡熱病

① 重要病證~肝燥熱證과 燥澁便閉證으로 大別

② 치료목표~中下焦의 裡陰을 下氣시킴(清肝燥熱).

(7) 太陽人 外感腰脊病

① 重要病證~解體이라 通稱되는 것으로서 上體는 完健하고 下體는 풀린것 같아서 行去할 수 없다.

② 치료목표~下焦(肝·腎經)의 기운을 도와준다(健脚益髓)

(8) 太陽人 內觸小腸病

① 重要病證~噎膈症

② 치료목표~補肝陰하여 吸聚之氣를 도와준다.

四象病證圖表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表	鬱狂證	少陽傷風證	太陽寒厥證		해역증
裏	亡陽證	亡陰證	肺燥寒證		
裏	太陰證	胸膈熱證	肝燥熱證		열격증
病	少陰證	陰虛午熱證	燥澁便閉證		

2) 四象人의 心身病證

體局	恒心	恒心尤甚即	重證	完實無病	大病
太陽人	急迫之心	八九日 大便不通해도(小便旺多則)非殆證也라	噎膈則 胃脘之上焦가 散豁如風	小便旺多	噎膈
少陽人	懼心	懼心이 至於恐心하면 大病·健忘이 되며 健忘은 陰證이다.	大便不通則 胸膈이 必如烈水	大便善通	大便不通
太陰人	怯心	怯心이 至於怕心하면 大病·怔忡이 되며 怔忡은 重證이다.	痢病則 小腸之中焦가 窒塞如霧	汗液通暢	痢病 陽剛堅密
少陰人	不安定之心	咽喉病은 其病이 太重해도 爲緩病也라	泄瀉不止則 臍下가 必如冰冷	飲食善化	虛汗 泄瀉不止

4. 體質屬性과 體質飲食

古來로 「醫食同源」이라 하여 攝生 및 疾病의 豫防과 治療에 있어서 日常의 食事が 醫藥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效能이 있음을 알수 있다.

飲食은 藥物보다 氣의 偏向性이 적어서 五氣(溫熱平涼寒)中 비교적 氣가 平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飲食의 性質에 따라 溫性에 유사한 음식과 涼性에 유사한 음식으로 나눌 수 있으니 四象體質의 屬性과 음식이 지닌 氣의 傾向성에 따라 그 體質에 유리한 음식과 불리한 음식이 있게 된다. 장기적인 眼目에서 볼 때 각자의 체질에 맞는 음식은 最上의 補藥이 되지만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은 毒이 되어 發病을 誘引하고 질병을 惡化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體質飲食의 중요한 意義는 그 음식을 성취함으로써 過大之臟의 기능은 抑制하고, 過小之臟의 機能을 도와주어 臟局偏在로 인한 不均衡을 조절하며, 또 陽人은 陰性경향으로 誘導하고, 陰人은 陽性경향으로 유도하는 보조수단으로서 相互均衡을 잡아주는데 있다.

예를 들어 太陽人 적음음식은 過大之臟인 肺의 기능을 抑制하고 過小之臟인 肝의 기능을 補하는 음식으로 전체적으로 맑고, 清熱利水法으로 上焦의 기운을 下氣시켜 불균형을 조절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니 기운을 맑게하는 苳蓆類, 蔬菜類와 補肝利水하는 해물류, 조개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體質概念에 의한 음식의 分類는 개개의 體質의 特性을 바탕으로 臟腑機能의 偏差를 보완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現今의 劃一的인 營養學的 食餌法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 飲食攝生에 있어서의 주된 目標

① 疾病의 回復과 豫防에 있어서 治療의 보조수단이 되며 건강식품의 선택에는 體質分類가 要望된다.

② 養生에서 飲食攝生은 精神과 肉體의 균형 및 조화라는 입장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2) 體質適應飲食

(1) 太陽人

① 太陽人음식은 氣味가 清平疏淡하고 담백한 음식이 좋고 또한 補肝하는 음식으로서 지방이 적은 해물류의 음식이 좋다.

② 적음음식: 모밀, 냉면, 순채나물, 포도, 머루, 다래, 감, 앵두, 모과, 송화가루, 솔잎, 새우, 조개류, 굴, 게, 해삼, 붕어 등 ……

(2) 少陽人

① 少陽人은 脾胃臟에 항상 熱이 많기 있으므로 음식은 氣가 서늘하고 生冷한 음식이나 과일, 채소류의 음식이 좋고, 陰虛하기 쉬우므로 補陰하는 음식이나 해물류의 음식이 좋다.

② 적음음식: 보리, 팥, 녹두, 바나나, 딸기, 호박, 가지, 당근, 배추, 상치, 우엉(뿌리), 수박, 참외, 돼지고기, 계란, 생굴, 전복, 새우, 가자미, 복어, 잉어, 가물치, 얼음, 빙과류 등 ……

(3) 太陰人

① 太陰人은 체격이 크고 소화기능이 풍부한 음식이나 味가 重濁한 음식이 좋다.

② 적음음식: 밀, 콩, 울무, 수수, 들깨, 고구마, 쇠고기, 우유, 버터, 치즈, 간유, 명란, 밤, 잣, 호도, 은행, 배, 매실, 살구, 자두, 무우, 도라지, 더덕, 연근, 토란, 고사리, 마, 버섯, 김, 미역, 다시다, 설탕 등 ……

(4) 少陰人

① 소음인은 소화력이 약하고 脾胃臟이

冷하여 항상 더운 음식물이 좋고 辛味한 조미료를 많이 攝取하는 것이 좋다.

② 적응음식 : 찹쌀, 차조, 감자, 벌꿀, 닭고기, 노루고기, 개고기, 염소고기, 양고기, 양젓, 꿩고기, 참새고기, 명태, 조기, 도미, 멸치, 민어, 미꾸라지, 사과, 귤, 토마토, 복숭아, 시금치, 양배추, 미나리, 파, 마늘, 생강, 고추, 겨자 등 ……

5. 體質針 및 處方運用的 精神

東醫壽世保元에서 針治療에 대한 東武선생의 有一한 見解가 피력된 곳은 少陰人 泛論으로 少陰人 中氣證 舌卷不語한 사람이 合谷穴에 刺針하여 治愈되는 것을 볼 때 다른 體質의 경우에도 體質에 따라 有效한 治療穴이 있음을 시사하였고 이에 대하여 後學들의 研究를 기대하는 표현을 하였다.

현재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李炳幸의 太極針法과 權度沅의 體質針 理論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有效한 臨床效果를 얻는 경우가 있으므로 應用價値가 있다고 사료되나 많은 문제점이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가능한 한 李濟馬의 四象論의 核心이라 할 수 있는 氣의 偏在나 病所에 대한 점을 고려하여 陰陽升降을 이용하여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體質에 따른 針治療가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太極針法 및 體質針法의 理論的인 問題點

: 臟腑論의 概念上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內經의 臟腑病證은 五行에 뿌리를 둔 것이며 臟象 및 臟의 病證을 論할 때 臟腑間의 관계를 五行의 相生相克을 통한 循環理論이라 볼 수 있으나 四象論에서의 臟腑概念은 四焦와 연관되어 四黨이 현실적 차원에서 설정되고 臟間의 관계와 治療의 應用面에 있어서

도 氣의 偏在나 病證의 所在를 四焦概念에 입각하여 把握하고 이를 上下陰陽의 원리를 이용하여 均衡을 이루도록 유도하여 주는 것이므로 四象에서 응용되는 大小관계에 대한 設定을 그대로 經絡理論과 연결시켜 主治穴을 選定한 것은 문제가 남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臟腑概念에 대한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6. 四象醫學의 優秀性

1) 四象醫學의 特性

① 心身醫學

~ 心身醫學이란 心과 病의 관계를 연구하여 많은 身體疾患을 診斷과 治療에 活用하고자 하는 學問으로 특히 心身症을 그 對象으로 하는데 心身症이란 身體의 증상을 主症狀로 하며 그 진단과 치료에 心理的인 因子의 배려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病態를 말한다. 광의적인 의미로 본다면 韓醫學全體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히 四象醫學은 “心之愛惡所欲와 喜怒哀樂偏着者 爲病 ……”이라 하여 心慾에 따라 疾病이 發한다고 함으로써 精神優位の 病因論을 論하고 四象人이 간직한 특수한 心理狀態(恒心)가 주위환경이나 사회적 여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커다란 질병이 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自律神經失調로 발생하는 心身症과 같다.

② 稟受醫學

~ 四象醫學은 先天的으로 臟腑의 大小偏在를 지니고 있으며 臟腑의 大小로 인해서 큰 臟器는 그 機能이 더욱 實하기 쉽고, 작은 臟器는 그 機能이 더욱 虛하기 쉽기 때문에 病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天稟의 相異點이 子孫에게 形質傳移되어 그 體質에 따른 家族歷을 형성하고, 또

어떤 體質에는 어떤 疾患이 더 잘 이환하는지 그 경향성을 추측할 수 있으므로 질병을 사전에 豫防하고 치료하는데 증치의학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하겠다.

③ 體質醫學

~ 在來의 醫學이 모든 인간을 劃一的으로 취급하여 個體性을 고려하지 않는데 대하여 四象醫學은 人間의 特性을 몇개의 類似性에 따라 분류하여 독창적인 體質醫學을 수립하였다. 그러므로 體質을 가려서 病症에 맞게 投藥하면 그것은 生理的인 慾求나 機序에 迎合된 것이니 體內的 吸收도 신속하러니와 藥毒의 蓄積作用이 없어 치료의 반응이 빠르게 나타난다.

④ 社會醫學

~ 지금까지 널리 운용되고 있는 영양학이나 건강법 및 위생관리가 친편일률적이어서 각 개인의 체질의 특수성이 무시되어 왔다.

그러므로 앞으로 體質과 飲食과의 관계, 각기 體質에 알맞는 健康管理, 天稟의인 性情의 體質的인 調節 등 修養問題 등등을 體質과 연관지어 새로운 方向으로 선도한다면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無病長壽의 삶을 누리며 원활한 人間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⑤ 가장 效果的인 運用分野

~ 慢性病, 成人病, 心身症, 病이 複合的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등

2) 四象醫學의 問題點

① 體質의 絕對性 여부

~ 人體의 生理와 病理는 지극히 치밀하고 複雜한 것으로서 四象醫學의 原理가 이러한 複雜한 人體의 病理를 다루는 絕對唯一의 原理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은 再考의 餘지가 있다.

② 體質鑑別의 客觀性 缺如

~ 東醫壽世保元의 辨證論에 四象人의 體

形, 氣象, 脈性質, 材幹, 恒有證 一般病證 등 多角的인 辨別條件이 記載되어 있지만 客觀性이 희박하여 實質的인 辨別이 用易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III. 結 論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四象醫學은 內經醫學의 延長이 아니고, 儒學的 토양위에서 나타난 性情論的 입장에서 要略된 醫學이다.

2) 四象醫學은 周易의 宇宙論的 要略精神과 儒學的 實學精神을 母體로 하여 만들어진 四元 構造의 哲學概念이다.

3) 四象醫學은 體質的 證治醫學으로서 獨特한 體質病證을 完成하였다.

4) 四象醫學은 東西醫學을 초월한 새로운 差等的 反應醫學으로서의 새로운 章을 열고 있다.

5) 四象體質醫學은 心身醫學으로서 人格의 修養의 方法을 提示하고 社會醫學으로서의 豫防醫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參 考 文 獻

1. 洪淳用·李乙浩：四象醫學原論(譯)，壽文社，서울，1973.
2. 李濟馬：格致藥，太陽社，서울，1985.
3. 黃義完：心身症，행림출판，서울，1985.
4. 崔鍾百：四象醫學이 東洋醫學에 미치는 醫學的 意義，경희대학교 대학원，1973.
5. 金勳：한국 최근세 동양의학의 학술적

- 특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1981, 12.
6. 李乙浩: 四象醫學說 批判 —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 대한 한의학 회보, 2권 8, 9호, 64, 10.
 7. 池圭鎔: 사상의학과 기존의학의 관계 및 해석에 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Vol.1, No.1, 1989.
 8. 金達來: 사상의학 병증론에 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Vol.1, No.1, 1989.
 9. 崔炳一: 체질에 응용되고 있는 針치료법에 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Vol.1, No.1, 1989.
 10. 宋一炳: 사상체질과 체질음식, 한국食文化학회지, Vol.3. No.4, 1988.
 11. 上海中醫學院編: 中醫學基礎, 商務印書館, 1981.
 12. 金完熙: 漢醫學原論, 成輔社, 1982, 서울.